

자유 무역 협정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자유 무역 협정은 특정 국가 간의 상호 무역 증진을 위해 상품의 이동을 자유화하는 협정이다. 이 협정의 근본적인 목적은 협정을 체결한 권역 내 국가, 즉 역내국들의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하는 데에 있다. 이를 위해 역내국들은 관세를 비롯한 무역 장벽을 완화하거나 철폐하여 상호 간에 무역 특혜를 부여한다. 이로 인해 역내국과 역외국의 무역 구조가 변화되면서 무역 창출 효과, 무역 전환 효과, 무역 굴절 효과 등이 나타난다.

먼저, 무역 창출 효과는 자유 무역 협정의 체결로 인해 역내국 간에 새로운 무역이 발생하면서 상호 간 무역 이익이 발생하는 현상이다. 자유 무역 협정을 체결하여 역내국 간의 관세가 이전보다 낮아지면 역내국들은 자국에서 생산하는 상품을 상대적으로 저렴한 역내국의 동질 상품으로 대체하게 된다. 이로 인해 역내국들은 가격 경쟁력에서 비교 우위를 지닌 상품을 생산하는 데에 자본이나 노동력 등의 생산 요소를 집중하게 되면서 역내국의 자원 배분의 효율성이 증가한다. 결국 역내국들은 수출을 통해 무역 이익이 증가하고, 수입을 통해 역내국 소비자의 후생이 증가한다.

다음으로 무역 전환 효과는 한 국가가 기존에 수입하던 상품을 자유 무역 협정 체결 이후 역내국의 상품으로 대체하는 현상이다. 이는 역내국 상품이 역외국의 동질 상품보다 생산 비용이 높더라도 ㉔ 낮은 관세로 인해 가격 경쟁력에서 비교 우위가 생기는 경우에 발생한다. 이때 역내국의 관세 수입이 ㉕ 줄어 경제적 후생이 감소될 수 있으므로 자유 무역 협정으로 얻는 무역 이익을 높이기 위해서는 무역 전환 효과보다 무역 창출 효과가 더 커야 한다.

마지막으로 무역 굴절 효과는 역내국 간의 무역 특혜를 이용하여 역외국이 자국에 유리한 방향으로 상품을 역내국에 우회 수출하는 현상이다. 이는 자유 무역 협정에서 역내국들이 역외국에 서로 다른 관세를 부과하는 것을 허용하기 때문에 나타난다. 즉 역외국이 자국에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역내국에 바로 수출하던 상품을, 자국에 낮은 관세를 부과하는 역내국을 거쳐 수출함으로써 이전보다 더 많은 이익을 얻는 것이다.

(나)

자유 무역 협정에서 원산지는 상품의 관세 혜택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따라서 모든 자유 무역 협정에서는 상품의 원산지를 판정하는 기준인 원산지 결정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역내국은 이 기준에 ㉖ 따라 수입 상품의 원산지를 판정해서 원산지가 역내인 경우에만 관세 혜택을 부여한다.

일반적으로 역내국이 수입 상품의 원산지를 판정할 때는 원산지 결정 기준의 기본 원칙을 우선적으로 검토한다. 원산지 결정 기준의 기본 원칙에는 역내 가공 원칙과 충분 가공 원칙 등이 있는데, 이를 충족하지 못하면 역내 원산지 상품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역내 가공 원칙이란 상품의 가공 공정이 역내에서 중단 없이 수행되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상품의 가공 공정의 일부가 역외에서 이루어진 경우, 원칙상 역내 원산지 상품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 충분 가공 원칙이란 상품의 실질이 변형될 만큼의 충분한 공정을 수행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이에 따라 협정에서는 조립, 건조, 분쇄 등 상품의 실질에 변화를 주지 못하는 단순한 공정

을 별도로 정하고 해당 공정만으로 가공한 상품은 역내 원산지 상품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상품이 기본 원칙을 충족하였다면, 다음으로 품목별 원산지 기준에 따라 상품의 원산지를 검토한다. 품목별 원산지 기준은 역외에서 생산된 재료의 사용 여부에 따라 완전 생산 기준과 실질 변형 기준으로 ㉗ 나눌 수 있다. 완전 생산 기준은 상품이 역내에서 생산된 재료만을 사용하여 생산되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이다. 이를 충족하면 역내 원산지 상품으로 인정받는다. 그렇지 않고 역외에서 생산된 재료를 사용하여 가공한 상품의 경우 실질 변형 기준을 적용하여 원산지를 판정해야 한다. 실질 변형 기준에는 세번 변경 기준, 가공 공정 기준 등이 있다.

세번 변경 기준은 국제 품목 분류 체계에 따라 상품에 부여되는 품목 번호인 HS 코드를 활용하는 기준이다. 역외에서 생산된 재료와 이를 사용해 역내에서 최종적으로 가공된 상품의 HS 코드가 서로 다르면, 재료의 실질적 특성이 변형된 상품으로 ㉘ 보고 해당 상품을 역내 원산지 상품으로 인정한다. 가공 공정 기준은 섬유, 석유 화학 등과 같은 특정 분야 상품의 원산지를 판정할 때 적용되는 기준이다. 역외에서 생산된 재료를 사용하여 상품을 가공하는 전체 공정 중, 협정에서 재료의 실질적 특성이 변형된다고 보는 공정 이상을 역내에서 수행하면 해당 상품을 역내 원산지 상품으로 인정한다.

이러한 원산지 결정 기준은 각 협정별로 산업 보호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품목마다 다르게 적용할 수 있다. 역내국은 원산지 결정 기준을 효과적으로 운용하면 무역 창출 효과를 보장받을 수 있고, ㉙ 무역 굴절 효과 등과 같은 자유 무역 협정의 부정적 효과를 방지할 수 있다.

1.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㉑ (가)는 중심 화제에 대한 상반된 입장을 소개하고, 이에 대한 절충 방안을 설명하고 있다.
- ㉒ (가)는 중심 화제와 관련된 하나의 사례를 중심으로 다양한 이론을 시대순으로 나열하고 있다.
- ㉓ (나)는 중심 화제를 하위 유형으로 분류하고 유형별로 장단점을 비교하고 있다.
- ㉔ (나)는 중심 화제와 관련된 개념들을 제시한 후 각각의 특징들을 설명하고 있다.
- ㉕ (가)와 (나)는 모두, 중심 화제로 인해 발생하는 다양한 효과를 소개하고, 각각의 효과가 안고 있는 한계점을 지적하고 있다.

2. 앞글의 '자유 무역 협정'에 대해 이해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㉖ 수입 상품의 원산지를 판정하기 위해 원산지 결정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 ㉗ 원산지 결정 기준은 산업 보호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협정마다 동일하게 운용된다.
- ㉘ 역내국들이 역외국의 상품에 대해 서로 다른 관세를 적용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 ㉙ 역내국 간의 상품의 이동을 자유화하여 역내국들의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 ㉚ 기존에 존재하던 무역 장벽을 완화하거나 철폐하는 방식을 통해 역내국 간 무역 특혜를 부여하고 있다.

※ 다음은 밑줄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한 학습지의 일부이다. 3~4 번의 물음에 답하시오.

수입 상품의 생산 비용에 대하여 100%의 관세를 부과하는 갑국은 병국에서 나일론 실을 수입하고 있었다. 갑국-을국 간에 모든 상품의 관세를 철폐하는 자유 무역 협정이 체결되면서 ㉠세 국가 간의 무역 구조의 변화가 발생하였다. 이후 갑국은 국내에서 스타킹을 제조하기 위해 협정 체결 기간 을국에서 수입한 나일론 실(HS 5402.44)을 제직 공정으로 직물로 만들었으며, 병국으로부터 수입한 스판덱스 실(HS 5402.31)로 재단 및 봉제 공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자국의 염료로 염색한 스타킹을 생산하였다. ㉡갑국은 생산한 스타킹에 대해 을국에서 관세 혜택을 받았다.

(단, 세 국가는 동질의 상품을 생산하며, 제시된 조건 이외에는 고려하지 않음.)

[활동 1] 다음은 ㉠를 정리한 표이다. 이를 참고하여 ㉡로 나타나는 경제적 효과에 대해 이야기해 보자.

	갑국		을국		병국
	나일론 실	염료	나일론 실	염료	나일론 실
생산 비용	25	50	15	60	10
생산량 변화	감소	증가	증가	감소	감소

[활동 2] 다음은 <갑-을 자유 무역 협정>의 원산지 결정 기준의 일부이다. ㉢를 고려하여 을국의 입장에서 스타킹의 원산지를 판정해 보자.

제1장 기본 원칙

1. 상품의 가공은 역내에서 중단 없이 충족되어야 함.
2. 상품은 건조, 분쇄, 조립의 공정만으로 원산지 상품으로 간주 되지 않음.

제2장 품목별 원산지 기준

1. 품목 분류

품목	HS 코드	상품
섬유	HS 6115.21	스타킹

2. '섬유의 상품'은 제2장의 3과 4의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원산지로 인정함.
3. 다른 HS 코드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4. 역내국 내에서 재단 및 봉제 공정 이상이 수행된 것.

3. 밑글을 읽은 학생이 '활동 1'에 대해 보일 수 있는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갑국에서 나일론 실과 염료의 생산량이 변화한 것은 갑국이 비교 우위를 지닌 상품에 생산 요소를 집중했기 때문이겠군.
- ② 을국에서 나일론 실의 생산량이 증가한 것은 역내국 간의 무역 창출 효과가 발생했기 때문이겠군.
- ③ 을국에서 염료의 생산량이 감소한 것은 자국에서 생산하던 염료를 역내국의 동질 상품으로 대체했기 때문이겠군.
- ④ 을국에서 나일론 실의 생산량이 증가하고 병국에서는 감소한 것은 낮아진 관세로 인해 갑국에 역내국 상품이 역외국 상품보다 가격 경쟁력에서 비교 우위가 생겼기 때문이겠군.
- ⑤ 병국보다 을국의 나일론 실이 생산 비용이 높지만 을국의 생산량이 증가한 것은 갑국이 역외국으로부터 얻는 관세 수입이 역내국과의 무역 창출 효과로 얻는 이익보다 컸기 때문이겠군.

4. '활동 2'에 참여한 학생의 대답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스타킹의 가공 공정이 갑국 내에서 중단 없이 수행되었으므로 역내 가공 원칙을 충족하고 있군.
- ② 스타킹은 협정에서 별도로 정한 단순한 공정으로 가공한 것이 아니므로 충분 가공 원칙을 충족하고 있군.
- ③ 스타킹은 역내에서 완전하게 생산된 재료만을 사용하여 가공된 것이 아니므로 완전 생산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군.
- ④ 스타킹과 나일론 실의 HS 코드가 서로 다르므로 세번 변경 기준을 충족하고 있군.
- ⑤ 스타킹은 스판덱스 실을 사용하여 협정에서 규정한 재단 및 봉제 공정 이상을 수행한 상품이므로 가공 공정 기준을 충족하고 있군.

자유 무역 협정

5. (가)와 (나)를 참고하여 ㉠의 이유를 추론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역내 가공 원칙에 의해 수입 상품의 원산지가 역외국임을 확인하여 역외국이 우회 수출로 얻기를 기대하는 관세 이익을 제한할 수 있기 때문이다.
- ② 실질 변형 기준을 적용하면 역외에서 생산된 재료를 사용하여 가공한 역외국의 상품이 역내국으로 수입되어 역외국이 무역 이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 ③ 역외국의 상품에 높은 관세를 부여하던 역내국이 원산지 결정 기준에 따라 해당 상품을 역내 원산지로 인정하면 관세 수입이 이전보다 크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 ④ 역외국이 자국의 상품을 원산지 결정 기준에 따라 역내 원산지 상품으로 인정받아서 상대적으로 자국에 낮은 관세를 부과하는 역내국으로 수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 ⑤ 역외국이 자국에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역내국을 거쳐 자국에 낮은 관세를 부과하는 역내국으로 수출하여 얻으려는 무역 이익을 원산지 결정 기준에 따라 보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6. 문맥상 ㉠~㉣와 바꾸어 쓰기에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저조(低調)한
- ② ㉡: 감소(減少)하여
- ③ ㉢: 의거(依據)하여
- ④ ㉣: 구분(區分)할
- ⑤ ㉤: 간주(看做)하고

문단 단위 해설 - (가) #1문단

(가)

자유 무역 협정은 특정 국가 간의 상호 무역 증진을 위해 상품의 이동을 자유화하는 협정이다. 이 협정의 근본적인 목적은 협정을 체결한 권역 내 국가, 즉 역내국들의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하는 데에 있다. 이를 위해 역내국들은 관세를 비롯한 무역 장벽을 완화하거나 철폐하여 상호 간에 무역 특혜를 부여한다. 이로 인해 역내국과 역외국의 무역 구조가 변화되면서 무역 창출 효과, 무역 전환 효과, 무역 굴절 효과 등이 나타난다.

자유 무역 협정의 정의를 설명하며 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유 무역 협정을 맺은 국가(=역내국)는 경제적 이익을 얻기 위해 협정을 맺었으므로 관세를 낮추거나 무역 특혜를 부여합니다. 이때, 총 세 가지 효과가 나타난다고 합니다. 무역 창출 효과, 무역 전환 효과, 무역 굴절 효과가 바로 그것인데, 다음 문단부터 이 효과에 대해서 설명할 것임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가) #2문단

먼저, 무역 창출 효과는 자유 무역 협정의 체결로 인해 역내국 간에 새로운 무역이 발생하면서 상호 간 무역 이익이 발생하는 현상이다. 자유 무역 협정을 체결하여 역내국 간의 관세가 이전보다 낮아지면 역내국들은 자국에서 생산하는 상품을 상대적으로 저렴한 역내국의 동질 상품으로 대체하게 된다. 이로 인해 역내국들은 가격 경쟁력에서 비교 우위를 지닌 상품을 생산하는 데에 자본이나 노동력 등의 생산 요소를 집중하게 되면서 역내국의 자원 배분의 효율성이 증가한다. 결국 역내국들은 수출을 통해 무역 이익이 증가하고, 수입을 통해 역내국 소비자의 후생이 증가한다.

역시나, '무역 창출 효과'에 대한 설명이 등장합니다. 자유 무역 협정의 체결로 인해 역내국 간에 새로운 무역이 발생하는데, 이를 통해 이익을 얻는 것이 '무역 창출 효과'입니다. 당연하게도, 역내국 간의 관세가 낮아지거나 혜택을 얻게 되면 역내국에서 생산하는 상품들의 수출 경쟁력은 역외국 상품들에 비해 높아질 것입니다. 이렇게 서로 유리한 상품을 수출하고, 상대가 더 유리한 상품은 수입하면서 생산 요소의 집중을 통한 자원 배분의 효율성이 증가하게 됩니다. 따라서 역내국들은 수출이 증가하여 이익을 보게 되며, 수입을 통해 국민들에게 더욱 저렴한 가격에 좋은 물건을 공급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가) #3문단

다음으로 무역 전환 효과는 한 국가가 기존에 수입하던 상품을 자유 무역 협정 체결 이후 역내국의 상품으로 대체하는 현상이다. 이는 역내국 상품이 역외국의 동질 상품보다 생산 비용이 높더라도 낮은 관세로 인해 가격 경쟁력에서 비교 우위가 생기는 경우에 발생한다. 이때 역내국의 관세 수입이 줄어들 경제 후생이 감소될 수 있으므로 자유 무역 협정으로 얻는 무역 이익을 높이기 위해서는 무역 전환 효과보다 무역 창출 효과가 더 커야 한다.

다음은 '무역 전환 효과'에 대한 설명이 등장합니다. '무역 전환 효과'는 한 국가가 기존에 수입하던 상품을 역내국의 상품으로 전환하는 효과로, 앞서 '무역 창출 효과'에서 말했듯 수출 경쟁력이 높아지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렇게만 보면 '무역 전환 효과'는 긍정적인 효과로 보이겠지만, 수입국 입장에서는 그렇지 못합니다. 수입국의 경우에는 관세를 낮게 부여한 역내국의 물품을 수입할 때, 기존에 거뒀던 관세의 양이 줄어들어 손해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관세가 줄어드는 양보다 자유 무역 협정을 통해 얻는 이익이 더 커야 하므로, '무역 전환 효과'에 비해 '무역 창출 효과'가 더 커야 합니다.

(가) #4문단

마지막으로 무역 굴절 효과는 역내국 간의 무역 특혜를 이용하여 역외국이 자국에 유리한 방향으로 상품을 역내국에 우회 수출하는 현상이다. 이는 자유 무역 협정에서 역내국들이 역외국에 서로 다른 관세를 부과하는 것을 허용하기 때문에 나타난다. 즉 역외국이 자국에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역내국에 바로 수출하던 상품을, 자국에 낮은 관세를 부과하는 역내국을 거쳐 수출함으로써 이전보다 더 많은 이익을 얻는 것이다.

마지막입니다. '무역 굴절 효과'에 대한 설명이 등장하는데, '역외국'이 유리한 조건으로 '역내국'에 우회 수출하는 현상이라고 합니다. 무역 특혜를 이용하는 것이라고 하는데, 예시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A국과 B국에서 관세를 없애는 자유 무역 협정을 맺은 상황에서, C국은 자동차를 A국에 수출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자동차는 A국의 경우 관세 100%, B국의 경우 관세 50%를 책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C국의 입장에서는 B국에 수출한 후, B국의 지사나 중간 거점 회사를 통해 A국으로 수출하는 것이 이득일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이 '무역 굴절 효과'입니다. 물론 지문에서는 등장하지 않지만, 조금 더 나아가 보겠습니다. 앞서 3문단에서는 '무역 전환 효과'로 인해 관세를 건어들이는 양이 감소해 손해를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무역 굴절 효과' 역시 관세를 건어들이는 양의 감소로 인한 손해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앞서 제시한 예시를 가져와서 설명하자면, C국이 B국을 통해서 자동차를 수출하게 된다면 A국은 원래 건을 수 있던 관세를 건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A국은 관세를 낮추거나, 손해를 감내해야 하는 딜레마에 빠집니다.

그렇다면, A국과 같이 피해를 보는 국가들을 방지하기 위해 우회를 막을 방법이 무언가 존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지문에는 대안이 등장하지 않으므로, 머릿속에서 한번 떠올리는 정도만으로 충분합니다. 만약 지문이 여기서 끝나지 않고 이어졌다면, 이러한 단점을 보완할 정책이 등장했을 테니까요.

자유 무역 협정

문단 단위 해설 - (나) #1문단

(나)

자유 무역 협정에서 원산지는 상품의 관세 혜택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따라서 모든 자유 무역 협정에서는 상품의 원산지를 판정하는 기준인 원산지 결정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역내국은 이 기준에 따라 수입 상품의 원산지를 판정해서 원산지가 역내인 경우에만 관세 혜택을 부여한다.

(나) 지문 역시 자유 무역 협정에 대한 이야기로 지문을 시작하고 있는데, 새로운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원산지'가 바로 그것인데, 모든 자유 무역 협정에서는 상품의 원산지를 판정하는 기준인 '원산지 결정 기준'을 마련한다고 합니다. '수입 상품'의 원산지가 '역내(=협정국)'인 경우에만 관세 혜택을 부여하기 위해서라고 하는데, 여기서 무언가 기시감을 느꼈어야 합니다.

원산지가 '역내'국인 경우에만 관세 혜택을 주겠다는 점에서 앞서 (가) 5문단, '무역 굴절 효과'가 떠오르지 않나요? '원산지 결정 기준'을 마련하는 것은 '무역 굴절 효과'의 단점인 우회 수출로 인한 관세 감소를 막을 대책인 것입니다.

(나) #2문단

일반적으로 역내국이 수입 상품의 원산지를 판정할 때는 원산지 결정 기준의 기본 원칙을 우선적으로 검토한다. 원산지 결정 기준의 기본 원칙에는 역내 가공 원칙과 충분 가공 원칙 등이 있는데, 이를 충족하지 못하면 역내 원산지 상품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원산지를 판정할 때, 원산지 결정 기준의 기본 원칙을 우선적으로 검토한다고 합니다. 기본 원칙에는 '역내 가공 원칙'과 '충분 가공 원칙' 등이 있다는 것을 보아 다음 문단부터 이 원칙에 대해 설명할 것임을 쉽게 예상할 수 있습니다.

(나) #3문단

역내 가공 원칙이란 상품의 가공 공정이 역내에서 중단 없이 수행되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상품의 가공 공정의 일부가 역외에서 이루어진 경우, 원칙상 역내 원산지 상품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 충분 가공 원칙이란 상품의 실질이 변형될 만큼의 충분한 공정을 수행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이에 따라 협정에서는 조립, 건조, 분쇄 등 상품의 실질에 변화를 주지 못하는 단순한 공정을 별도로 정하고 해당 공정만으로 가공한 상품은 역내 원산지 상품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역내 가공 원칙에 대한 설명입니다. 가공 공정이 역내(=협정국)에서 중단 없이 수행되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여기까지 왔는데도 '역내'라는 단어가 입에 붙지 않는다면, 그냥 '협정 맺은 국가' 정도로 바뀌두고 읽으면 도움이 됩니다. 다시 지문으로 돌아가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면 좋은 점이 있습니다. '원칙상'이라는 단어가 등장했다는 것입니다. 문제가 나올지 아닐지는 모르지만, 이러한 단어의 경우 '예외' 역시 존재할 수도 있다는 점을 머릿속 한구석에는 넣어두어야 합니다. 만약 선지에서 '무조건' '어떠한 경우에도' 역내 원산지 상품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고 하면 이는 잘못된 선지입니다.

다음으로는 '역내 가공 원칙'에 이어 '충분 가공 원칙'에 대한 설명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상품의 실질에 변화를 주지 못하는 공정을 정하고 이러한 공정만을 가한 상품은 역내 원산지 상품으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꼼수를 방지하겠다는 것입니다. 상품을 우회 수입한 후 역내국에서 '단순한 공정'만 실시하는 상황을 막겠다는 것입니다.

(나) #4문단

상품이 기본 원칙을 충족하였다면, 다음으로 품목별 원산지 기준에 따라 상품의 원산지를 검토한다. 품목별 원산지 기준은 역외에서 생산된 재료의 사용 여부에 따라 완전 생산 기준과 실질 변형 기준으로 나눌 수 있다. 완전 생산 기준은 상품이 역내에서 생산된 재료만을 사용하여 생산되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이다. 이를 충족하면 역내 원산지 상품으로 인정받는다. 그렇지 않고 역외에서 생산된 재료를 사용하여 가공한 상품의 경우 실질 변형 기준을 적용하여 원산지를 판정해야 한다. 실질 변형 기준에는 세번 변경 기준, 가공 공정 기준 등이 있다.

이렇게 기본 원칙을 충족하였다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 '품목별 원산지 기준'을 검토한다고 합니다. '품목별 원산지 기준'은 역외(=협정국 외)에서 생산된 재료의 사용 여부에 따라 '완전 생산 기준', '실질 변형 기준'으로 나뉩니다.

먼저, '완전 생산 기준'의 경우 '역내'의 재료만을 사용했는지를 판별합니다. 그렇다면 '역외'에서 생산한 재료가 있는 경우, '실질 변형 기준'을 적용할 것입니다. 이러한 '실질 변형 기준'에는 '세번 변경 기준'과 '가공 공정 기준'이 있다고 합니다. 다음 문단에서 이 두 기준에 대해 설명할 것이므로, 지문 독해의 흐름을 이어 나가야 합니다.

(나) #5문단

세번 변경 기준은 국제 품목 분류 체계에 따라 상품에 부여되는 품목 번호인 HS 코드를 활용하는 기준이다. 역외에서 생산된 재료와 이를 사용해 역내에서 최종적으로 가공된 상품의 HS 코드가 서로 다르면, 재료의 실질적 특성이 변형된 상품으로 보고 해당 상품을 역내 원산지 상품으로 인정한다. 가공 공정 기준은 섬유, 석유 화학 등과 같은 특정 분야 상품의 원산지를 판정할 때 적용되는 기준이다. 역외에서 생산된 재료를 사용하여 상품을 가공하는 전체 공정 중, 협정에서 재료의 실질적 특성이 변형된다고 보는 공정 이상을 역내에서 수행하면 해당 상품을 역내 원산지 상품으로 인정한다.

‘세번 변경 기준’의 경우 상품에 부여되는 품목 번호인 ‘HS 코드’를 활용하는 기준이라고 합니다. 만약 역외 생산 재료와 역내 가공 상품의 HS 코드가 다르면, 실질적 특성이 변형된 것으로 인정해서 역내 원산지 상품으로 보는 것입니다.

‘가공 변경 기준’의 경우 ‘섬유’, ‘석유 화학’ 등과 같은 특정 분야의 상품의 원산지를 판정할 때 적용되는 기준입니다. 협정에서 정한 실질적 특성이 변형되었다 보는 공정 이상을 역내에서 수행하면 역내 원산지 상품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정보를 제시하는 문단이므로, 머릿속에 정리해둔 채 넘어가도록 합시다. 전부 기억할 자신이 없다면 이 두 기준에 대한 설명이 (나) 5문단에 있다는 사실만 기억해도 충분합니다.

(나) #6문단

이러한 원산지 결정 기준은 각 협정별로 산업 보호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품목마다 다르게 적용할 수 있다. 역내국은 원산지 결정 기준을 효과적으로 운용하면 무역 창출 효과를 보장받을 수 있고, 무역 굴절 효과 등과 같은 자유 무역 협정의 부정적 효과를 방지할 수 있다.

앞서 1문단에서 느꼈듯, ‘무역 창출 효과’를 보장받으며, ‘무역 굴절 효과’와 같은 부정적 효과를 방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뒤에서 파악해도 충분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독해의 방향성을 ‘우회 국가’를 막기 위한 대안이라는 점에 초점을 둘 수 있다는 점에서 미리 파악하는 것에 장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정답 : ④

① (가)는 중심 화제에 대한 상반된 입장을 소개하고, 이에 대한 절충 방안을 설명하고 있다.

→ (가)의 경우, 중심 화제에 대해 상반된 입장을 소개하지도, 절충 방안을 설명하지도 않습니다.

② (가)는 중심 화제와 관련된 하나의 사례를 중심으로 다양한 이론을 시대순으로 나열하고 있다.

→ (가)는 중심 화제와 관련된 하나의 사례를 중심으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가)에서 사례 자체가 등장하지 않는다는 점을 유의합시다. 또한, 다양한 이론의 시대순으로 나열하지도 않습니다.

③ (나)는 중심 화제를 하위 유형으로 분류하고 유형별로 장단점을 비교하고 있다.

→ (나)는 중심 화제를 하위 유형으로 분류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기본 원칙’과 ‘품목별 원산지 기준’으로 원산지를 판별하는 법을 나누고, ‘품목별 원산지 기준’의 하위 유형인 ‘세번 변경 기준’, ‘가공 공정 기준’으로 나눈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유형의 장단점을 제시하지는 않았다는 점에서 적절하지 않은 선지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④ (나)는 중심 화제와 관련된 개념들을 제시한 후 각각의 특징들을 설명하고 있다.

→ (나)는 중심 화제인 ‘자유 무역 협정’에서의 ‘원산지’ 판별과 관련된 다양한 판별 기준을 제시한 후, 각각의 특징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는 적절한 선지로 볼 수 있습니다.

⑤ (가)와 (나)는 모두, 중심 화제로 인해 발생하는 다양한 효과를 소개하고, 각각의 효과가 안고 있는 한계점을 지적하고 있다.

→ (가)의 경우, 중심 화제로 인해 발생하는 ‘무역 창출’, ‘무역 전환’, ‘무역 굴절’ 효과를 소개하고 있으나, 이러한 효과의 한계점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무역 전환 효과’의 단점을 소개하고 있긴 하지만, 이는 단점이지 ‘한계점’이 아니라는 점에 유의합시다. 또한, (나)의 경우 ‘효과’ 자체가 없다는 점을 확인하고 빠르게 넘어가면 됩니다.

자유 무역 협정

2. 밑줄의 '자유 무역 협정'에 대해 이해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정답 : ②

① 수입 상품의 원산지를 판정하기 위해 원산지 결정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 '모든 자유 무역 협정에서는 상품의 원산지를 판정하는 기준인 원산지 결정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고 합니다. 역내국에서는 '이 기준에 따라 수입 상품의 원산지를 판정'하므로 이는 적절한 선지임을 알 수 있습니다.

② 원산지 결정 기준은 산업 보호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협정마다 동일하게 운용된다.

→ 원산지 결정 기준의 경우, (나)에서 '각 협정별로 산업 보호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품목마다 다르게 적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는 적절하지 않은 선지임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 '협정마다'가 아닌 '품목마다'라고 적혀 있어 헷갈렸다면, '협정별로~품목마다' 다르게 적용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합니다. 협정에 따라 품목 기준을 모두 변경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③ 역내국들이 역외국의 상품에 대해 서로 다른 관세를 적용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 역내국들이 역외국의 상품에 대해 서로 다른 관세를 적용하는 것은 '무역 굴절 효과'의 설명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역내국들이 역외국에 서로 다른 관세를 부과하는 것을 허용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효과가 바로 '무역 굴절 효과'라는 부분을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기억나지 않았다면, 역외국과 역내국 간의 서로 다른 관세에 대한 문제를 제시한 부분인 '무역 굴절 효과' 부분을 찾아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④ 역내국 간의 상품의 이동을 자유화하여 역내국들의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 자유 무역 협정은 '특정 국가 간의 상호 무역 증진을 위해 상품의 이동을 자유화하는 협정'이므로 이는 적절한 선지입니다.

⑤ 기준에 존재하던 무역 장벽을 완화하거나 철폐하는 방식을 통해 역내국 간 무역 특혜를 부여하고 있다.

→ '관세를 비롯한 무역 장벽을 완화하거나 철폐하여 상호 간에 무역 특혜를 부여'하는 협정이 '자유 무역 협정'입니다. 따라서 이는 적절한 선지입니다.

3. 밑글을 읽은 학생이 '활동 1'에 대해 보일 수 있는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정답 : ⑤

수입 상품의 생산 비용에 대하여 100%의 관세를 부과하는 갑국은 병국에서 나일론 실을 수입하고 있었다. 갑국-을국 간에 모든 상품의 관세를 철폐하는 자유 무역 협정이 체결되면서 ㉠세 국가 간의 무역 구조의 변화가 발생하였다. (단, 세 국가는 동질의 상품을 생산하며, 제시된 조건 이외에는 고려하지 않음.)

【활동 1】 다음은 ㉠를 정리한 표이다. 이를 참고하여 ㉡로 나타나는 경제적 효과에 대해 이야기해 보자.

	갑국		을국		병국
	나일론 실	염료	나일론 실	염료	나일론 실
생산 비용	25	50	15	60	10
생산량 변화	감소	증가	증가	감소	감소

- 갑국, 을국 간에 모든 상품의 관세를 철폐하는 자유 무역 협정을 체결하였으므로, 갑국, 을국의 경우 '역내국', 병국의 경우 '역외국'이 됩니다. 지문에서는 '역내국', '역외국'의 명칭을 사용하여 개념을 설명하였으므로, 박스 안에서 제시하는 국가들에도 이러한 명칭을 적용하여 '역내국 갑국', '역내국 을국', '역외국 병국'으로 변경해 둔 후 문제 풀이로 들어가는 것이 유리합니다.

① 갑국에서 나일론 실과 염료의 생산량이 변화한 것은 갑국이 비교 우위를 지닌 상품에 생산 요소를 집중했기 때문이겠군.

→ '역내국 갑국'의 경우, '역내국 을국'에 비해 나일론 실의 생산 비용이 비싸고, 염료의 생산 비용이 저렴합니다. 따라서, '역내국 갑국'은 염료 생산에 비교 우위를, '역내국 을국'은 나일론 실의 생산에 비교 우위를 가집니다. 이러한 경우 '무역 창출 효과'에 따라 '비교 우위를 지닌 상품을 생산하는 데에 자본이나 노동력 등의 생산 요소를 집중하게 되는 것'입니다.

② 을국에서 나일론 실의 생산량이 증가한 것은 역내국 간의 무역 창출 효과가 발생했기 때문이겠군.

→ '역내국 을국'에서 나일론 실의 생산량이 증가한 것은 앞서 ①번 선지에서 말했듯 비교 우위를 갖는 상품의 '무역 창출 효과'에 따른 생산 요소 집중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③ 을국에서 염료의 생산량이 감소한 것은 자국에서 생산하던 염료를 역내국의 동질 상품으로 대체했기 때문이겠군.

→ '역내국 을국'에서 염료의 생산량이 감소한 것은 자국에서 생산하던 염료에 비해 '역내국 갑국'에서 생산되는 염료가 비교 우위를 지녔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역내국 갑국'에서 생산하는 염료로 대체되었기에 생산량이 감소했습니다.

④ 을국에서 나일론 실의 생산량이 증가하고 병국에서는 감소한 것은 낮아진 관세로 인해 갑국에 역내국 상품이 역외국 상품보다 가격 경쟁력에서 비교 우위가 생겼기 때문이겠군.

→ '역내국 을국'에서 나일론 실의 생산량이 증가하고, '역외국 병국'에서는 감소한 것은 기존에 '역내국 갑국'이 '역외국 병국'에서 수입하던 '역외국 병국'의 나일론 실에 비해 관세가 폐지된 '역내국 을국'의 나일론 실의 비교 우위가 더욱 강해졌기 때문입니다.

⑤ 병국보다 을국의 나일론 실이 생산 비용이 높지만 을국의 생산량이 증가한 것은 갑국이 역외국으로부터 얻는 관세 수입이 역내국과의 무역 창출 효과로 얻는 이익보다 컸기 때문이겠군.

→ 선지 자체에서 이상한 점을 바로 찾을 수 있습니다. '역외국 병국'보다 '역내국 을국'의 나일론 실이 생산 비용이 높지만, 관세를 고려한다면 '역내국 을국'의 나일론 실은 15, '역외국 병국'의 나일론 실은 20의 비용이 들어갑니다. 따라서 '역내국 을국'의 비용이 저렴하기 때문에 '무역 전환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선지에서는 '역외국(=병국)'으로부터 얻는 관세 수입이 '역내국(=을국)'과의 무역 창출 효과로 얻는 이익보다 컸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역내국 을국'이 비교 우위를 가지기에 수입했는데, '역외국 병국'의 관세 수입이 더 컸을 리가 없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A와 B 중에서 A를 선택한 이유가 B가 더 좋기 때문이다.'와 같은 구성인 것입니다.

4. '활동 2'에 참여한 학생의 대답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정답 : ④

수입 상품의 생산 비용에 대하여 100%의 관세를 부과하는 갑국은 병국에서 나일론 실을 수입하고 있었다. 갑국-을국 간에 모든 상품의 관세를 철폐하는 자유 무역 협정이 체결되면서 ㉠ 세 국가 간의 무역 구조의 변화가 발생하였다. 이후 갑국은 국내에서 스타킹을 제조하기 위해 협정 체결 기간 을국에서 수입한 나일론 실(HS 5402.44)을 제직 공정으로 직물로 만들었으며, 병국으로부터 수입한 스판덱스 실(HS 5402.31)로 재단 및 봉제 공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자국의 염료로 염색한 스타킹을 생산하였다. ㉡ 갑국은 생산한 스타킹에 대해 을국에서 관세 혜택을 받았다.

(단, 세 국가는 동질의 상품을 생산하며, 제3국 이외에는 고려하지 않음.)

[활동 2] 다음은 <갑-을 자유 무역 협정>의 원산지 결정 기준의 일부이다. ㉢를 고려하여 을국의 입장에서 스타킹의 원산지를 판정해 보자.

제1장 기본 원칙

1. 상품의 가공은 역내에서 중단 없이 충족되어야 함.
2. 상품은 건조, 분쇄, 조립의 공정만으로 원산지 상품으로 간주 되지 않음.

제2장 품목별 원산지 기준

1. 품목 분류

품목	HS 코드	상품
섬유	HS 6115.21	스타킹

2. '섬유의 상품'은 제2장의 3과 4의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원산지로 인정함.
3. 다른 HS 코드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4. 역내국 내에서 재단 및 봉제 공정 이상이 수행된 것.

- 마찬가지로 '역내국 갑국', '역내국 을국', '역외국 병국'으로 변경해 둔 후 문제 풀이로 들어가는 것이 유리합니다.

① 스타킹의 가공 공정이 갑국 내에서 중단 없이 수행되었으므로 역내 가공 원칙을 충족하고 있군.

→ 스타킹의 가공 공정이 '역내국 갑국' 내에서 '제직 공정으로 직물로 만들어 '재단 및 봉제재 과정을 거쳐', '염료로 염색한 스타킹을 생산'했으므로 역내 가공 원칙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② 스타킹은 협정에서 별도로 정한 단순한 공정으로 가공한 것이 아니므로 충분 가공 원칙을 충족하고 있군.

→ 기본 원칙의 '단순한 공정'을 확인해 보면, '건조, 분쇄, 조립'이 해당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역내국 갑국'의 경우 '제직 공정', '재단 및 봉제재', '염색'과 같은 공정을 거쳐 가공했으므로 충분 가공 원칙을 충족하고 있다 볼 수 있습니다.

자유 무역 협정

- ③ 스타킹은 역내에서 완전하게 생산된 재료만을 사용하여 가공된 것이 아니므로 완전 생산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 스타킹은 역내에서 완전하게 생산된 재료만을 사용하여 가공되지 않고, '역외국 병국'에서 생산된 '스판덱스 실'을 사용하여 생산되었습니다. 따라서 완전 생산 기준을 충족하지 않으므로 이는 적절한 선지입니다.

- ④ 스타킹과 나일론 실의 HS 코드가 서로 다르므로 세번 변경 기준을 충족하고 있다.

→ 스타킹의 HS 코드는 6115.21, 나일론 실은 5402.44입니다. 따라서 '세번 변경 기준'을 충족하는 듯 보이지만, 여기서 함정이 존재합니다. '세번 변경 기준'의 정의를 다시 보면, '역외에서 생산된 재료와 ~'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역내국 을국'에서 생산된 재료인 나일론 실은 '세번 변경 기준'과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는 학생들이 박스 안에 제시된 설명에서 '을국' = 외국으로 판단해 헛갈린 선지로, '역내국 을국'으로 기입해 두었다면 헛갈릴 여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또한, 끊어읽기를 사용해 'HS 코드가 서로 다르'는 점을 한번, '세번 변경 기준을 충족'하는지를 한번 확인함으로써, 단순히 HS 코드가 다르다고 해당 선지가 적절하다고 생각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 ⑤ 스타킹은 스판덱스 실을 사용하여 협정에서 규정한 재단 및 봉제 공정 이상을 수행한 상품이므로 가공 공정 기준을 충족하고 있다.

→ 스타킹은 스판덱스 실을 사용하여 협정에서 규정한 '역내국 내에서 재단 및 봉제 공정 이상'이 수행된 상품입니다. '스판덱스 실'을 수입한 후 '재단 및 봉제 과정을 거쳐'서 생산했다는 점에서 '가공 공정 기준'을 충족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5. (가)와 (나)를 참고하여 ㉠의 이유를 추론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정답 : ㉠

- ㉠ 역내 가공 원칙에 의해 수입 상품의 원산지가 역외국임을 확인하여 역외국이 우회 수출로 얻기를 기대하는 관세 이익을 제한할 수 있기 때문이다.

→ 역내 가공 원칙에 의해 수입 상품의 원산지가 역외국임을 확인할 경우, 역외국이 '무역 굴절 효과'를 통해 우회 수출로 얻기를 기대하는 관세 이익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가)의 '무역 굴절 효과' 내용과 (나)의 원산지 이론을 자유롭게 연결시킬 수 있다면 쉽게 파악할 수 있는 선지입니다.

- ㉡ 실질 변형 기준을 적용하면 역외에서 생산된 재료를 사용하여 가공한 역외국의 상품이 역내국으로 수입되어 역외국이 무역 이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 실질 변형 기준을 적용할 경우, 생산된 재료를 사용하여 가공한 역외국의 상품은 역내국으로 수입할 경우 원산지를 역외국으로 판단합니다. 이 경우, 무역 협정의 혜택을 받지 못하기에 역외국은 무역 이익을 얻지 못합니다.

- ㉢ 역외국의 상품에 높은 관세를 부여하던 역내국이 원산지 결정 기준에 따라 해당 상품을 역내 원산지로 인정하면 관세 수입이 이전보다 크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 역외국의 상품에 높은 관세를 부여하던 역내국이 원산지 결정 기준에 따라 해당 상품을 역내 원산지로 인정하면 관세 수입이 이전보다 줄어들게 됩니다. 역내국의 상품이 될 경우, 무역 장벽이 완화됨으로써 관세가 낮아지는 등의 특혜를 부여받는다라는 점을 유의합니다.

- ㉣ 역외국이 자국의 상품을 원산지 결정 기준에 따라 역내 원산지 상품으로 인정받아서 상대적으로 자국에 낮은 관세를 부과하는 역내국으로 수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 역외국이 자국의 상품을 원산지 결정 기준에 따라 역내 원산지 상품으로 인정받게 될 경우, 역내국의 생산품은 관세 혜택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같은 협정을 맺은 어떤 역내국으로 수출하더라도 관세 혜택을 동일하게 받는 것입니다. 따라서 '역외국'의 상품이 아닌 '역내국'의 상품이 되므로 낮은 관세를 부과하는 역내국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 ㉤ 역외국이 자국에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역내국을 거쳐 자국에 낮은 관세를 부과하는 역내국으로 수출하여 얻으려는 무역 이익을 원산지 결정 기준에 따라 보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 역외국이 자국에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역내국을 거쳐 자국에 낮은 관세를 부과하는 역내국으로 수출하여 얻으려는 무역 이익은 '무역 굴절 효과'입니다. 이러한 굴절 효과를 막고자 원산지 결정 기준이 존재하는 것인데, 이를 보장하고자 한다는 것은 모순임을 알 수 있습니다.

6. 문맥상 ㉠~㉣와 바꾸어 쓰기에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정답: ㉠

㉠ ㉠: 저조(低調)한

→ 저조하다는 것은 '활기가 없거나 내용이 충실치 않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지문의 관세가 '낮은' 것은 '기준 대상 또는 보통 정도보다 적은 상태에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따라서 부정적인 어조를 포함하는 '저조'로는 바꾸어 쓰기에 적절하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 ㉡ ㉡: 감소(減少)하여
- ㉢ ㉢: 의거(依據)하여
- ㉣ ㉣: 구분(區分)할
- ㉤ ㉤: 간주(看做)하고